

사회

# 이러면서 아기 낳으라고?

## 기아차·금호산업 등 광주 대표기업들 '의무설치' 직장보육시설 외면

### 여성이 대부분인 사업장·여수산단 주요 기업들도

기아자동차·금호산업 등 광주지역 대표 기업들이 의무설치 시설인 직장보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간기업 464곳 가운데 242곳(52.3%)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기업 2곳 중 1곳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

하고 있는 셈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특히 설치의무를 어긴 사업장 중 54%는 앞으로도 직장보육시설을 두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조차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행 법령으로는 위반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15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LG이노텍 부품사업부, 대창운수 등 광주 대표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미설치 사유로 '재정 부담'을 들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한국알프스, 아인텔레서비스 광주지사 등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도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LG화학, GS칼텍스, 여천NCC,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내 주요 기업들도 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위험시설을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도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절한 공무원 될게요” 25일 오전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중강당에서 열린 '2010년도 신규임용후보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예비공무원들이 특강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7급→벤처기업→9급 “그래도 공무원이 좋아”

“젊음과 열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도록 일 하겠습니다.”

25일 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1층 중강당. 200여석의 강당 의자는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 182명으로 가득 찼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27일까지 '2010년도 신규임용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첫 일정은 강운태 광주시장의 특강. 60분 동안 진행된 강 시장의 특강이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자 예비 공무원들은 우르르 강당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모두 신규임용자이지만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으며, 특히 비교적 나이가 많은 몇몇은 독특한 경력이나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임용후보자 중 최고령자인 이경일

## ■ 광주시 예비공무원들의 별난 사연 건축회사·응급의료 일하다 전환 희귀병 앓다 장애인 도우려 시험

(46)씨. 이씨는 이미 두 차례나 공직에 몸을 담았다. 이씨는 지난 1990년도에 처음 노동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어 2년 만에 공직을 정리했다.

공부를 마친 뒤 지난 1997년 다시 7급 공무원 시험에 통과해 광주시 7급 공무원이 됐다. 이후 이씨는 벤처기업 CEO를 꿈꾸며 3년 만에 두번째 공직생활을 그만뒀다. 그러나 최근 다시 공직생활에 그리움을 느껴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세번째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임용후보자 가운데는 건설이나 응급의료 등 대학시절 전공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이를 토대로 시험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시설 9급(건축) 후보자 김중우(33)씨와 지방 9급 소방사(구급) 후보자 고광훈(27)씨가 바로 이 케이스. 김씨는 대학졸업 뒤 5년 동안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직에 문을 두드렸으며, 고씨는 2년 동안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었기 때문.

자신의 처지를 통해 주위를 둘러보고 공직생활을 꿈꾸게 된 이도 눈에 띄었다. 실제(37)씨는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03년까지 광주의 한 벤처기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희귀 질환을 앓게 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에 공직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실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갔다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냉랭함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적이 있다”면서 “때로는 공무원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기도 하는 만큼 항상 친절할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주교육청 공무원들 일과시간에 상습도박

## 두달간 판돈 6000만원... 과장 등 4명 검거

일과시간 중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나주교육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5일 사무실에서 수백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손모(60)과장 등 나주교육청 공무원 4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전날 오후 5시에 나주교육청 당직실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는 등 지난 6월 28일부터 2개월 동안 모두 29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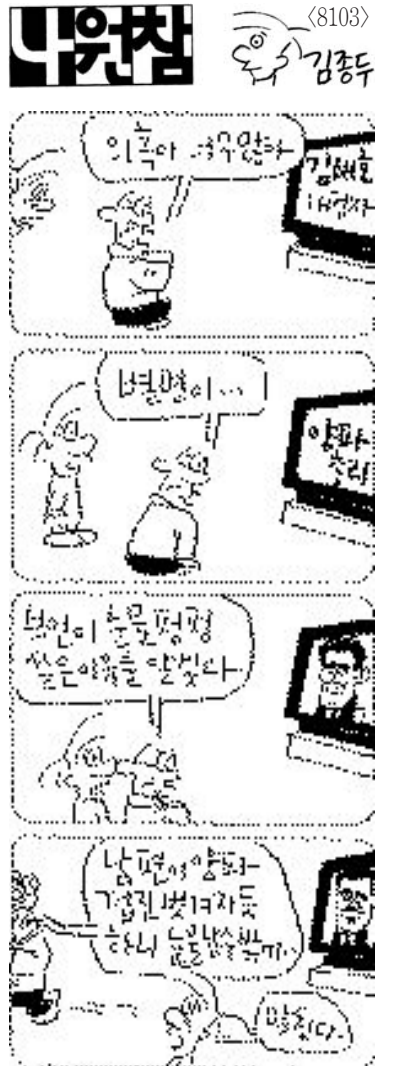
경찰은 손씨 등이 휴가 중인 다른 직원 1명(미검)을 포함한 5명이 모여 최근 2개월간 6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 등은 경찰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

습한 24일에도 288만원의 판돈을 놓고 화투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은 교육장 휴가기간(23~24일)인 데다 검거된 직원 가운데는 교육장 대신 교육청 행정을 책임져야 할 교육과장과 복무상황을 점검해야 할 총무계장, 교육장 운전원 등이 포함돼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나주교육청 직원들의 상습도박에 대해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죄송스럽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보험료 1억 대납 3억 챙긴 30대 실형

## 광주지법 선고

보험계약 초기에 보험모집수당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많이 지급되는 허점을 노려 여대의 모집수당을 챙긴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25일 무직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모집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당을 단기간에 지급하는 보험업계의 수당체계를 노린 행위”라며 “범

행 횡수가 10차례나 되고 보험사의 피해액이 2억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공범인 백모씨와 함께 지난해 2월 말부터 3개월여간 10차례에 걸쳐 직업이나 소득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로 종신보험 계약을 맺은 뒤 모집수당 3억4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보험계약 초기에 모집수당이 보험료보다 많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보험 가입자 10명의 보험료 1억3000여만원을 대납한 뒤 3배 가량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휴가철 음식점 50곳 위생불량 등 적발

## 전남도·식약청 점검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전남지역 50곳의 음식점이 위생불량, 무신고 영업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남도와 지난달 5~23일 지역 내 해수욕장을 비롯해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318개소를 점검한 결과, 50개소가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위생적인 관리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 식당영업 등이 문제가 됐으며 영업정지(13곳), 시정명령(11곳), 과태료(25곳), 고발(1곳)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 내용(중복)을 살펴보면 ▲영업주 또는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 실시(17곳) ▲조리장 내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미흡(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7곳) 등으로 조사됐다. 또 무신고 영업

을 한 음식점 1곳은 고발조치 됐다. 전국적으로는 점검 대상 1만1180 개소 중 555곳의 음식점이 위생불량, 무신고 영업 등으로 적발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치료중 사망 함평 60대

## 비브리오패염 판정

전남도는 25일 “지난 22일 비브리오패염증 의심증상으로 광주 한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고모(61·함평군)씨의 최종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씨는 평상시 간 질환, 당뇨 등의 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입원 전 양념된 계장을 먹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망한 고씨가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올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패염증 환자는 4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3명이 숨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문신 타 골프장 회원 거부 인권침해 아니다

## 인권위 결정

문신의 문신 탓에 골프장 회원 가입이 거절됐더라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 가입 신청을 했다가 등과 어깨, 가슴, 팔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용모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몸에는 상당한 범위에 걸쳐 문신이 있어 타인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문신의 형태나 크기 등으로 봐서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이 때문에 회원가입이 거부됐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 등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도심 아파트 안방에 황구렁이 '소동'



○도심 아파트 안방 침대에서 멸종위기종인 황구렁이가 나타나 집주인이 기겁하고 119구조대원이 출동하는 등 소동.

○25일 광주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아파트 2층 김모(여·28)씨의 집 침대 아래에서 길이 2m 가량의 황구렁이가 한 마리가 출몰했다는 것.

○김씨는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구렁이 머리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19구조대원은 천연기념물인 황구렁이를 포획해 남구 대촌동 야산에 방생.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